

데스크시작



김미은
편집부국장·문화부장

공연장에서 이처럼 많은, ‘우는 남자’를 본 건 처음이었다. 옆자리 50대 남자는 공연 내내 눈물을 흘치느라 바빴다. 뒷줄의 20대 남자 일행도 마찬가지로. 1막이 끝나자 뒷 좌석 관객 한 명이 “무슨 작품이 이렇게 틱을 안 주고 몰아치냐”라고 일행에게 말했다. 관객 모두 별개진 눈으로, 서로 약간은 민망해 하며 자리에 앉아 2막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 후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지난해 말 ‘인생 베스트 작품’ 중 하나로 꼽고 싶은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관람했다. 경남 진주에 자리한 경남문화회관에서. 서울과 대전 공연이 매진이라 ‘작품’을 따라 찾아가는 곳이다. 1981년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은 지난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로비엔 2018년 공연 라인업이 걸려 있었다. 김선옥과 헬리스트 지안왕 공연, 린 옐리자베스 쿠프루 우승자 바이올리

광주 문화 예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니스트 바딤 레핀과 도이치 방송오케스트라의 만남, 정경화 & 조성진 듀오 콘서트,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등 막강한 라인업이 눈에 띄었다. 개관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기념하는 리스 트였겠지만 인구 35만 명의 도시에서 진행한 라인업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올해는 선우예권과 덴마크로얄오케스트라 공연이 대기 중이다.

첫 단추는 문화회관장 선임

광주로 돌아오는 길, 자연스레 떠오르는 건 광주문화예술회관이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여 년 동안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 문화를 전파해 온 ‘유일한’ 공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감동을 받고, 환호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많았다. 낙후된 시설과 주먹구구식 운영 등의 문제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문화회관이 거기에 맞는 공연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오랫동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2019년, 광주문화회관이 대대적인 변화 앞에 섰다. 지난 1991년 개관 후 무려 28년 만의 대규모 변신인데, 리모델링과 개방형 관광 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회관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249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음향 시설 교체 등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들어간다.

변화의 중심은 개방형 문화회관장이자다. 광주시는 최근 민주인권평화국장 등 4개 자리에 대한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관장은 8개 시립예술단과 공연 관리 등 문화회관 운영 전반을 맡는 자리로 326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게 된다.

관장의 문화 예술 전문가 입성은 ‘드디여’라는 표현이 딱 맞다. 문화계와 의회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무원 대신 개방형 공모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관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든 판단에서였다. 개관 후 관장은 모두 시 공무원이 맡아 왔다. 지금까지 23명의 관장이 거쳐갔고 평균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1년 미만 근무자도 10여 명에 달하며 2015년과 2017년엔 6개월 또는 8개월 미만 사람도 있었다.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일 벌이지 않고 조용히 머물다 가는 자리’라는 평도 많았다.

반면 부산·대전 등 대부분의 광역시는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으며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의 문화회관 역시 전문가들이 사령탑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숙원이었던 전문가 발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공연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장 선임이 절실하다. 하지만 문화 예술계뿐 아니라

각종 공모를 둘러싸고 붙어지는 게 내정설, 측근 기용설이다. 예전 시장들에 비해 선거 캠프에서 일한 예술인과 문화 관련 측근들이 적다는 사실에 ‘안도 아닌 안도’를 하며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낙마 건 등 시의 인사 행태를 보면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철학이 같은’ 이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해 시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은 차원’이나 ‘지인 찬스’ 등으로 자리 하나 챙겨 주는 행위는 시장에게도 지역 문화 예술계에도 독이 될 뿐이다.

측근·보은인사 경계해야

앞으로 관장을 필두로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공모가 예정돼 있다. 회관 공연지원과장도 3월이면 일단 임기가 끝난다. 내정설이 돌기도 한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오늘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힘을 얻는다.

능력으로 승부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정한 롤 아래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광주 문화 예술의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갈 예술인들이 발탁돼 1년 365일 근사한 ‘문화 선물’을 전달해 주는 행복한 그날을 기대해 본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하로유통 부장

연말연시엔 으레 사람 만나는 자리가 많아진다. 한 해 동안 소원했던 이들과 술잔이라도 기울여야 마무리 되어가는 느낌, 신세지고도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과 저녁 식사며, 새해의 자리 이동, 각종 신년회 등등…. 무슨 일을 하건 어느 지역에 살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을 만나면 악수 먼저 하는 게 인사다. 인사라는 게 서로가 기분 좋으면 다 행이려면 악수를 하고나서 안짱아지는 때가 많다. 유독 손에 힘을 주어 꼭 잡아 쥐거나, 손바닥을 슬슬 긁어대는 이들 때문이다. 즐겁고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가 불쾌하고 악이 올라 부아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

몇 해 전 정성회담을 할 때마다 힘을

손만 내미는 게 악수는 아니다

과시하려던 트럼프의 악수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손바닥을 보이게 내밀어 상대의 손이 위로 올라오게 해 겸손한 듯 보이지만, 손을 꼭 쥐어 세차게 흔들다가 확 끌어당겨 제압하는 듯 하는 그의 악수는 인사라기보다 도발에 가까웠다. 수많은 기자들이 셔터를 터트리고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와 악수를 마치고 난 아베 총리는 면접을 치른 수험생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던 반면, 트럼프는 두 손 엄지를 치켜들어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본인이야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일본인을 뿐 아니라, 매너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도 바른 태도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악수란 본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중세에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대부분 오른손잡이었으므로 왼쪽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녀야 했다. 길을 가다 낯선 이를 만나면 서로를 경계하다가 싸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 오른손을 내밀어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다. 맞잡은 손을 서로 흔드는 것도 소매 춤에 담금이나 무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렇듯 무장 해제를 뜻하는 악수는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예의이고 본래 남자들이끼리만 하던 것이었다. 무장하지 않은 여성들의 악수는 근세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고, 지금도 남성이 먼저 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특히 둘째나 셋째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것은 이성을 유혹할 때나 보내는 메시지이므로 그저 장난으로 알고 시도했다가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빌 게이츠 MS회장이 수년 전 방한했을 때, 왼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악수를 해 우리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그의 얼굴과 표정은 호의와 친근함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악수 예절을 모르고 일어난 해프닝이라 할 수 있겠다.

일본 사람들은 악수를 하며 상체를 숙일수록 존경의 정도를 나타내며, 중국에서는 연장자순으로 악수를 청하고 손을 가볍게 잡되, 눈을 마주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 일로 여긴다. 부모와 어른, 연장자에 대한 수직적 예절을 중시하는 동양에서는 손윗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에서는 눈을 맞추고 힘 있게 손을 잡아 상대에게 정직함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너다

너무 세게 잡아도 기분 나쁘지만 마지못해 하듯 힘을 빼고 손만 내미는 악수도 재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만 살짝 대면서 소극적으로 내밀기만 하는 악수는 죽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불쾌감을 준다 하여 데드 피시(Dead Fish)라고 하는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방식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고 여차피 나눠야 될 악수라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보자. 손가락만 잡지 말고 손을 깊이 넣어 마주 잡되, 상대방의 나이와 악력에 맞춰 두세 차례 가볍게 흔들면서, 눈을 마주보고 밝은 표정을 지어준다면 심중팔구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불쾌감을 안겨주거나 호감을 주기도 하는 악수. 의도하지 않은 비호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모임 나서기 전 연습이라도 할 일이다. 해외여행이라도 갈라치면 그 나라 악수 예절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손만 내미는 게 악수 매너는 아닐 테니.

기고

황금돼지띠 새해에 바란다



박안수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교수신문이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축과 국내 정책들이 뜻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합성과 환호,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과의 짜릿한 승전보가 전해졌고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마찰과 잇단 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경제와 가계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올해는 노란 돼지에 해당되는 황금돼지띠 해라고 한다. 자고로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데 더욱 더 황금돼지띠 해이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부자 되는 꿈들을 그려 볼 것이다.

그런데도 곳곳에 어려움이 숨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에 해당되는 중·소 기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유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제가 시작되었고, 탄력 근무제 등 보완이 필요한 주 52시간 근무도 본격 시행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여 역점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지난해 몇 차례나 오른 미국의 기준 금리는 장기적으로 1500조 원에 이르는 우리 가계 부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는 국가 차원에서 큰 행사는 없지

만, 임시 정부 수립과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지 꼭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풀어야 할 난제들도 많아 보인다. 한전공대 부지 확정과 광주 군공항의 전라남도 이전, 빛가람 혁신도시의 활성화나 에너지 밸리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또한 엇그제 정부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와 합리적인 협상으로 조기가 마무리되어 가뜩이나 취업의 기회가 적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해 보인다. 지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

제’ 도입에 국회의원 정수와 방법 등도 충분한 토의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39곳에서 3월 13일 공명하게 실시되어야 된다.

우리 농업인의 최대 관심 사항인 쌀 목표 가격 확정과 농업 직불제 개정이 농가 소득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조기에 설립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어촌 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의 사기를 진작해 과감한 투자로 고용을 창출하고, 건전한 소비를 통해 우리 경제에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잘 되고, 근로자, 농어업인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평등 없이 함께 잘사는 그런 황금돼지띠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한전공대 유치 시도간 과열 경쟁 자제를

한국전력이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하는 한전공대 후보지 추천이 어제 마감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세 곳의 부지를 선정해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날 북구 첨단 3지구와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남구 승촌동 등 세 곳의 후보지를 추천했다. 광주시는 이들 부지가 산학연 연계와 정주·교육·교통 여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혁신도시가 자리한 전남과의 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연결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나주시 관내 세 곳을 추천하면서 혁신도시 활성화가 용이하고 국·공유지가 많아 부지 확보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부각시켰다.

후보지 추천이 마감됨에 따라 이제 공은 한전공대 부지 선정 심사위원회로 넘어갔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추천 부지 여섯 곳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현장 실사를 거쳐 한전에

심사 결과를 봉인해 전달하게 된다. 최종 부지는 오는 28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 등 4개 지자체·의회는 어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와 전남의 접경으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집적된 북구 첨단 3지구에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음섬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로 ‘통 큰 양보’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물론 한전공대 유치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발전의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수차례 한전공대 설립 지원과 후보지 결정에 대한 절대 승복을 약속한 만큼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최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5·18 조사위원 한국당 뒤편 차라리 반납하라

자유한국당이 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을 또다시 미뤘다. 이로 인해 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리한 명단에 대해서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며 내부 이견이 많아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추천이 연기됨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 출범은 또 다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후보로 거론했다는 논란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극단적 주장을 일삼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교절차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위원회’ 위원으로 자신을 선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공책과 같은 대열에서 있다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나 대표가 말하는 당내 이견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추천위원 명단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당이 5·18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서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민주평화당의 주장에 백번 공감한다. 또한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자유한국당 뒤편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는 정의당의 요구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無 等 鼓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자신의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옷가지도 않은 망연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 씨는 전 씨가 재임 시절 직선제 개헌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아마도 극우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석된다. 지금은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요 역사 왜곡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전 씨가 필사

이순자의 민주주의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였다.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통해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임 기간 언론 탄압과 삼정교육대 창설 등 끔찍한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또 영화 ‘1987’의 주요 배경이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당시 수많은 대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이는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갖고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총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모자라 국민을 총칼로 짓누르고,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 없는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니, 역장이 무너질 일이다. 이 씨와 보수 우익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우리와 확연하게 다른 것인가.

법원이 전 씨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전 씨는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여론전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8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